

David Bauer 박사, 귀납적 성경 공부.

강의 1, 서론, 귀납적 대 연역적

© 2024 데이비드 바우어와 테드 힐데브란트

귀납적 성경공부를 가르치는 David Bauer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 서론, 귀납적 대 연역적입니다.

제 이름은 David Bauer입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에 초점을 맞춘 이 교육 기회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나는 귀납적 성경 공부의 원리를 야고보서와 아마도 베드로전서, 그리고 어느 정도 유다서에도 적용할 것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제 이름은 데이비드 바우어입니다. 나는 1984년부터 이곳 Asbury Theological Seminary에서 가르쳤습니다. 저는 오하이오 주 맨스필드 출신입니다.

저는 Spring Arbor College(현재는 미시간 주 Spring Arbor University)에서 학부 과정을 마쳤습니다. 저는 여기 Asbury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에 있는 Uni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성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프린스턴신학교에서 박사후 과정도 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저는 여기서 30년 넘게 귀납적 성경공부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귀납적 성경 공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는 실제로 19세기 말에 등장한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적어도 처음에는 William Rainey Harper와 Wilbert W. White의 작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레이니 하퍼(William Rainey Harper)는 예일 대학교의 히브리어 교수였습니다. 그는 또한 시카고 대학의 창립 총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경학자, 구약학자, 침례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우리가 역사적 비평, 즉 성경에 대한 비판적 연구라고 부르는 것이 본격화되던 19세기 말에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성경에 대한 비판적 연구의 특징 중 하나는 출처를

식별하고 성경 본문 뒤에 있는 출처, 즉 기록된 출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학자들은 성경 작가들이 사용했던 기록된 자료를 재구성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본문보다는 오히려 그 이전 자료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하퍼는 이런 종류의 역사적 초점, 이런 종류의 비판적 초점이 실제로 성경을 교회에서 빼앗아가고 사역할 사람, 특히 교회에서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준비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성경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출처로 분석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적 접근법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하퍼는 구약성서 과정에서 성경 자체,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연구도 포함시켰으며, 학생들에게 책 전체나 방대한 양의 성경을 스스로 읽도록 격려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성경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학생들이 성경 본문 자체에 대한 이러한 직접적인 참여에 대해 일종의 흥분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본문을 분석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본문을 분리하는 비판적 접근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연구할 때는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전 소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William Rainey Harper는 그 기간 동안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었고 그의 학생 중 한 명은 장로교인인 Wilbert W. White였습니다.

화이트는 하퍼가 우리가 최종 형태라고 부르는 텍스트,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텍스트를 직접 연구해야 하는 신학 문서로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흥분했습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기초로서 개인의 영적 형성을 향한 관점에서 본문을 직접 연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Harper와 White는 실제로 이 사업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WW White는 계속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예일대에서 썸학, 특히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교파 신학교인 신학교에서 가르쳤으나 그가 가르치는 신학교의 커리큘럼이 경전의 교회로서 성경 연구에 중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최종 형태의 성경 연구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는 인도를 여행했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예를 들어 인도의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역한 인도 사람들도 매우 흥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영적 형성과 교회 사역의 기초로서 성경을 스스로 이해하도록 격려하는 데 초점을 맞춘 화이트의 연구에 대해 설명합니다.

화이트는 계속해서 뉴욕에 성서 신학교라고 불리는 신학교를 설립했는데, 이 신학교는 전 세계 성경 귀납적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20세기 전반에 걸쳐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귀납적 성경공부는 버지니아의 Union Theological Seminary,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Eastern Mennonite Theological Seminary, Associated Mennonite Biblical Seminaries, Pacific University의 Azusa,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곳에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귀납적 성경 공부를 평신도 성경 읽기와 연관시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나라인 여기 미국에서는 Kay Arthur와 그녀의 귀납적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매우 인기가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다른 나라로도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귀납적 성경 공부를 일종의 평신도 성경 읽기와 동일시합니다.

그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납적 성경 공부가 실제로 그다지 엄격하지 않고 전임 사역이나 전문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할 말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일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평신도들과 잘 관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과 학계에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종의 정교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귀납적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프린스턴과 같은 곳을 포함하여 다양한 신학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세계적 명성과 중요성을 지닌 일부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틀림없이 위대한 구약성서의 한 사람이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구약성서 학자 중 한 사람인 브레바드 차일즈(Brevard Childs)는 귀납적 성경

연구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나는 몇 년 전에 그의 마지막 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마지막 학생은 차일즈가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의 박사 과정 학생들이 귀납적 성경 공부와 귀납적 성경 공부의 역사를 잘 알도록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차일즈의 성경 연구에 대한 소위 정경적 접근 방식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루터 메이스(James Luther Mays)와 패트릭 D. 밀러(Patrick D. Miller), 프린스턴에서 가르쳤던 패트릭 D. 밀러(Patrick D. Miller) 같은 사람들을 포함한 다른 학자들도 귀납적 접근 방식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귀납적 성경 공부가 일종의 엄격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여기에서 발표하는 것을 통해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학문적으로 존경받을 만하고 학문적으로 책임감이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학문적으로 도전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연구에 대한 귀납적 방법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매우 철저할 것입니다.

나는 이 시리즈의 서문으로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펴볼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지속적으로 참조할 것입니다. 사실,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자체 내에서 여기서 논의할 내용을 살펴본 후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거나 돌아가서 일부 비디오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언급하고 싶고 다시 언급할 것인데,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은 실제로는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성경적인 연구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성경 해석학에 대한 일종의 입문서이므로 귀납적 성경 연구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성경 연구에서 수행되는 일, 즉 전 세계에서 성경 주석이라고 부르는 일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 자체에서 절대적으로 독특한 귀납적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하는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전 세계의 주석가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의 중요성과 그 독특함은 우리가 잠시 후에 이야기할 특정 강조점, 특정 강조점, 방법론적 엄격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그것은 성경 연구나 일반적인 성경 주석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우보다 방법론적으로 더 반영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그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철저하게, 좀 더 깊이 생각합니다. 또한, 그 포괄성 측면에서, 성경 연구의 이러한 다양한 측면들이 어떻게 모두 하나의 프로그램, 즉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일종의 패키지로 통합되었는지를 포괄적으로 시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몇 년 동안의 시간이 성경 연구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납적 방법에 따른 방법론적 접근 또는 방법론적 성경공부 접근의 기본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귀납적 접근 방식에 따른 이러한 체계적인 성경 연구의 기본 정의는 성경 본문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과거 역사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단계별 절차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 기자가 원래 청중에게 전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원래의 역사적 의미를 현대의 상황과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즉, 그 본래의 역사적 의미를 우리의 역사적 삶, 우리의 역사적 맥락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귀납적 성경 연구에 대한 일종의 축소판 정의는 성경이 그 자체의 용어로 말하도록 의도적으로 허용하여 정확하고 정확하며 통찰력 있는 해석과 적용을 가져오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시점에서 한 문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 자체의 용어로 말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텍스트 연구에 대한 귀납적 접근 방식의 강조점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성경 해석학은 일종의, 적어도 일부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거나, 성경 해석학의 일부 실무자들은 의심의 해석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연히 여기서 잠시 멈추고 해석학이라는 용어에 대해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석학은 의미의 과학, 의미의 과학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성경 연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미의 과학과 관련된 철학적 해석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학, 즉 성경에 적용되는 해석학은 성경 본문에서 의미를 도출하는 데 관련된 모든 문제를 도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해석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의미를 도출하는 작업과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방금 말한 내용으로 돌아가서, 오늘날 적어도 서구 세계의 많은 실무자들은 의심의 해석학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는 물론 세계의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성경 본문에 올 때 그 본문과 그 본문의 메시지가 억압적이고, 부당하며, 심지어 폭력적이라고 의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텍스트에 대한 일종의 판단에 참여하고, 텍스트에 대해 판단을 내리며, 어떤 의미에서는 텍스트 자체에 대해 텍스트를 사용하기 위해 텍스트 내의 폭력이나 억압을 식별합니다.

이제 성경에 대한 우리의 귀납적 접근 방식에는 일종의 의심의 해석학적 접근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의심은 성경 본문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심하는 만큼 본문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귀납적 접근 방식의 중심에는 일종의 자기 의심, 일종의 자기 비판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텍스트에 접근할 때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의미를 텍스트에 가져오려는 경향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아마도 가장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대해, 우리의 편견, 편견,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 가져오는 전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포착합니다.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를 다시 읽으려면 텍스트를 읽어야 합니다.

귀납적 접근 방식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텍스트를 일종의 더미로 사용하여 텍스트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종의 복화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성경이 우리의 방식이 아닌 그 자체의 방식으로

말하도록 의도적으로 허용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본문으로 읽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본문이 우리에게 그 자체로 말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의도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단어, 그 자체의 다른 메시지는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겠지만 꽤 자주 우리가 본문에 가져올 수 있는 생각과 모순되거나 적어도 도전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조금 발전시키기 위해 귀납적 성경 공부의 작동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광범위한 일반 프레임워크입니다. 우리가 작업하는 첫 번째 가정은 성경의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통찰력 있는 해석이 기독교 사역과 세상에서의 삶과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성경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고 주장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개인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성경은 중심 관심사이며, 우리가 다른 어떤 책보다 더 잘 알아야 할 책이지만, 또한 기업 생활을 위해서도 알아야 할 책입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설교, 교회 생활의 모든 면에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중심입니다.

더 많은 문화가 성경에서 멀어지거나 성경과 충돌할수록, 즉 문화가 성경을 덜 수용할수록, 교회가 성경을 절대적으로 중심적이고 자기 정의적인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마침내 복음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누가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곳이 안디옥에서였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것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11장의 맥락에서 우리는 안디옥이 실제로 최초의 혼합 교회, 즉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이나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교회가 아닌 최초의 교회였다는 것을 읽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1장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안디옥이 실제로는 세계적인 공동체였다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가 단순히 유대교의 한 종파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 환경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별개의 종교, 즉 별개의 종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국제적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그 국제적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갖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유대교의 변종인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유대교의 변형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 그 자체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별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11장에서, 누가는 또한 교회가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으며,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에게 일 년 넘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Tarsus에 따르면, 가르쳐지는 교회의 필요성은 실제로 교회가 이질적이거나 다양한 환경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러한 환경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투사하고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필요성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특정 문화권이 성경에 대해 덜 알수록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덜 알게 됩니다. 그 성경. 성경이 하는 주요 일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낯선 환경에서 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실제로 너무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확실히 그리스도인 사역자로서 우리의 본질적인 임무의 일부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과 궁극적으로 그분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있는 곳은 바로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그 페이지의 말씀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지면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실제로 그 지면의 말씀을 통해 나오는 성경의 메시지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 뒤에 숨어 있고 본문의 말씀에서 파생되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물론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서의 근원이 되는 문화는 오늘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성경에 대한 모든 연구는 초문화적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이상으로 성경은 애초에 반문화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에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신적이거나 초월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포함하고 있는 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다른 시대, 다른 문화에서 나왔고, 처음부터 반문화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즉 모든 인간 문화에 도전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신성한. 그것은 초월적인 계시이다. 우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서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 일종의 이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칼빈은 이것을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불렀다. 루터, 성경의 명확성. 성경에는 일종의 명확성이 있어서 성경을 읽는 사람,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 연구를 통해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속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성경을 깊이 이해하려면, 성경을 깊이 이해하려면 진정한 노력과 진정한 의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기독교인과 기독교 교회를 위한 성경의 중심성 때문에 매우 가치 있는

노력과 의도입니다. 두 번째 실제 가정은 모든 기독교 목사가 전문적인 성경 해석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문가라는 말은 분리되어 있거나 이것이 단순히 직업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라는 말은 이것이 그들의 소명과 그들이 하는 일의 핵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 소명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성경 해석자입니다. 당신이 목사라면, 당신은 어떤 의미에서 당신이 상주하는 신학자인 것처럼 성경의 권위자이자 상주하는 성경 해석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임무는 당신의 백성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도록 인도하여 그들이 실제로 스스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도록 돕는 책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들을 형성하고 형성하도록 허용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

다시 말하지만, 이는 실제로 성경 사역자들의 입장과 기독교 사역을 위한 사람들의 준비 부분에서 성경 자체를 연구할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PT 포사이스(PT Forsyth)는 20세기 초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였으며, 그는 기독교 사역은 도서정치여야 한다고 유명하게 말했습니다. 즉, 성경공동체, 성경으로 형성된 공동체이고, 기독교 목회자는 반드시, 기독교 목회자의 교육은 성경중심, 성경해석 중심의 성경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실제 가정은 성경 해석이 모든 사역과 모든 신학 분야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 해석이 모든 기독교 사역의 중심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지만, 관련 측면에서는 그 이상입니다. 목회자가 다루는 다른 것들에 대한 성경 연구. 물론 목회자들은 다양한 분야, 물론 신학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신학의 기초이며, 모든 기독교 신학은 성경을 이해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화하여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문제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지적 상황, 우리 자신의 지적 분위기 등.

물론 모든 기독교 사역, 적어도 목회 사역은 상담 같은 것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상담이 성경 중심이어야 하며 성경의

기초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서구 세계에서 많은 기독교 상담에는 세속적이고 비기독교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반기독교적인 개념을 실제로 활용하고 그런 다음 가볍게 세례를 주는 것, 즉 세례를 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기독교적인 걸치레를 하고 그것을 기독교 상담이나 기독교 목회적 돌봄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이에 반대하여 상담 등의 원동력으로서 중심으로서 성경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작업 가정은 세 번째를 보완합니다. 반면에, 성경 해석은 경험과 어떤 학문에서 나오는 모든 참된 통찰력을 통해 정보를 얻고 풍부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 연구가 다른 학문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윌리엄 레니 하퍼(William Rennie Harper)와 WW 화이트(WW White) 같은 초기 귀납적 성경 연구 사람들이 강조한 것 중 하나는 포괄적인 지식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지식이 세상의 다른 모든 지식과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해나 지식은 실제로 광대한 우주이며, 어느 지점에서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어느 시점에서든 그것은 지식의 다른 측면에 실제로 영향을 미쳐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진리와 관련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진리의 다른 학문, 영역, 측면에 대해 알려주지만, 이러한 진리의 다른 측면 역시 우리의 성경 연구에 영향을 줍니다.

다음으로 더 나아가서, 성경의 권위와 성경 해석의 적절한 방법 사이에는 떼어낼 수 없는, 즉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 교회에서 성경의 최고 권위가 수사적이거나 신조가 아니라 기능적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에 관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신조가 아니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에 관해

우리가 정말로 믿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의 측면에서 기능적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 예를 들어 목사나 설교자는 성경의 권위에 관해 가장 완고하고 완전하며 심지어 급진적인 개념을 말할 수도 있고, 성경의 언어적, 전체적 무오성 등에 관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하는 사람이 성경 본문을 선포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사역하면서 성경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성경 메시지는 성경 연구를 그의 사역의 중심으로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어떤 구절을 설교의 기초로 삼고 그 구절과 아무 관련이 없거나 심지어 그 구절과 모순되는 설교를 한다면, 실제로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간에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와 관련하여, 성경의 권위에 관해 그가 믿는 바에 따르면 그것은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이나 사역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의 최고 권위를 믿는다는 것은 본문의 메시지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면, 성경의 메시지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러한 확신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개념을 수용하고 실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성경공부 방법이다.

내가 말했듯이, 이는 성경 해석에 있어 올바른 방법의 중요성을 지적합니다. 성경의 궁극적 권위에 대한 주장의 결과는 우리가 본문에서 성경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나 방법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섯 번째 실제 가정은 성경 연구 방법이 성경 자체의 성격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귀납적 접근 방식의 절대적 핵심입니다. 귀납적 접근 방식은 성경 공부 방법을 숙고하고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 공부 방법을 생각하는 과정에서나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이 성경 본문 자체의 본질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경의 성격에는 실제로 세 가지 주요 또는 광범위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이면서 문학적이며 신학적인 것입니다. 이는 주요 참조 측면에서 역사적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학자들과 일반 기독교 독자들까지도 점점 더 많이 이해하게 되면서 관련되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메타 서사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메타서사는 나란히 서사를 뜻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거대 서사입니다.

즉, 성경 전체 뒤에는 큰 이야기, 역사적 이야기, 이야기가 있고 실제로 성경의 통일성을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창조의 맨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끝,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즉 완성까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나는 일이 설명되어 있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 거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역사적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창세기의 앞부분은 이스라엘 이전의 역사와 관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루신 것은 이스라엘 이전부터 시작되었지만 물론 적어도 창세기 12장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달할 때까지 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람들. 그것은 일차 지시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적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특정 시점에 인물들, 역사적 인물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들도 분명히 그 자체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역사적 과거의 특정 시점에 특정 역사적 인물이, 그리고 역사적 과거의 다른 인물이 겪고 있던 문제와 도전의 종류를 다루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그 성격에 따라 연구하려면 성경의 역사적 고정성의 측면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성경을 성경의 본성에 따라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경 자체가 어떻게 연구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이는 다시 성경적 권위라는 개념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실제로 성경의 권위 표현의 한 측면이다.

성경의 권위와 관련된 것 중 하나는 성경 본문의 본질에 따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물론 문학적이기도 합니다. 즉, 일차적 지시 대상의 측면에서 역사적이라면 일차적 방식의 측면에서는 문학적입니다.

즉, 그것은 문학, 텍스트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본문 중심성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실제로 문학적 연구, 문학적 의사소통에 포함된 내용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문학적 의사소통에 포함된 내용을 추적할 수 있는 모든 이해를 포함하고 이를 성경 본문 해석에 적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보게 될 것처럼, 우리는 성경 연구에 대한 귀납적 접근 방식이 실제로 문학적 접근 방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다시피 귀납적 접근 방식은 실제로 텍스트 중심 접근 방식입니다. 텍스트 전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방금 역사 연구와 관련된 역사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즉, 텍스트 전용이 아니라 텍스트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즉, 성경은 기본 양식의 측면에서 문학 문학이므로 그에 따라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주 명백히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 일차적인 목적에 있어서도 신학적이다. 성경의 주된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학적인 것입니다. 성경, 성경의 모든 책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보다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더 분명합니다. 나는 이것이 대부분의 성경에 분명히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비판적인 경향이 있다면, 그리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옳은지 아닌지를 결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솔로몬의 노래와 같은 책이 있는데, 누군가 그것을 우화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한, 내 생각에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도에 따르면 그 목적은 인간 사랑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 성적 사랑, 에로틱한 사랑 등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성한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노래에서도 인간의 성에 대한 경험과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일부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전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의 성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일차적 지시 대상이 부재나 생략을 통해 정확하게 표현되거나 정확하게 전달되는 문학적 장치인 것 같습니다. 명시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추론해야 한다는 사실은 실제로 이 책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하나님의 중심성을 시사합니다. 이제 제가 성경의 신학적 성격과 그것이 성경 해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이유는 적어도 서구 세계에서는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서구 세계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세계의 한 지역, 즉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구촌의 아이디어는 필연적으로 길을 찾고 세계의 다른 지역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서양의 아카데미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실제로, 특히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걸러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현실주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양에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아이디어 중.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일부 집단에서는 통역사 커뮤니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우리 모두가 특정 커뮤니티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신이고, 대표하고, 성장해 온 공동체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전제를 실제로 결정하고, 우리가 성경에 제기하는 질문을 결정하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결정합니다. 성경.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통역사 집단이 서로 대화할 수 없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하나의 해석 공동체를 대표하고 당신은 또 다른 해석 공동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성경 연구에 있어서 나는 너무 다른 의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당신에게 성경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어떤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 다른 의제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그러나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제기하는 질문과 우리가 얻는 답을 어느 정도 결정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즉, 성경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이해를 결정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일종의 역사적 재구성, 목적 또는 방향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가 공동체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난 몇 세기 동안 매우 비판적인 성경학문이 그랬습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성서학 해석 공동체는 역사적 재구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러한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까? 종종 역사적 예수 연구에는 이런 종류의 일이 포함됩니다. 즉, 성경 연구를 통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재구성해 보자고 말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초점입니다.

신흥 기독교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신흥 기독교의 사회적, 지적 역학을 이해하기 위해 신약성경을 연구하는 소위 종교사 접근 방식에서 성경에 접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초기 기독교부터 세계의 다른 위대한 종교까지. 실제로 그 목적은 인류의 종교적 본성을 이해하거나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서에서 파생한 초기 기독교의 출현에 대한 연구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및 세계의 다른 위대한 종교의 출현과 관련되어 있어 이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고 몇 가지를 도출할 수 있습니까? 인류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일종의 이해? 몇 년 동안 저는 이곳 북미 성서문학학회에서 매튜 그룹의 공동 회장으로 일했으며, 1년 동안 매튜 그룹에서 마태복음에 대한 용의 이해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Carl Jung), JUNG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보다 칼 융의 심리학과 심리학 이론에 대해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에 접근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가 해석의 공동체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역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초점이 실제로 신학적인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뿐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해석의 공동체에 속한 독서 전략이다. 그러나 이제 저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신학적, 이러한 신학적, 교회적 접근 방식, 즉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음과 더 일치하고 더 잘 일치한다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성경 자체의 본질과 목적은 다른 해석 공동체에 속하는 다른 접근 방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본질적인 성격의 측면에서 신학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이 모든 책의 주요 관심사는 분명히, 거의 모든 책이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그것들은 모두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교회에서 생겨났고, 모두 믿음의 공동체,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 신약은 물론 기독교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성경 연구는 실제로 해석과 적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수반하며, 해석이 적용에 앞서고 결정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성경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독창적인 의미, 독창적인 의미, 즉 작가가 청중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이면서도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독자들을 놀라게 하는 한 가지 현실은 아마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분명하게, 저자에 대한 감각, 즉 언급되는 감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언급되는 느낌을 경험할 때 즉시 두 가지를 인식합니다. 첫 번째로, 처음에 말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었고, 우리가 첫 번째 수신인도 아니었고, 우리가 원래 수신인도 아니었고, 여기에 청중이 있고, 여기에 텍스트가 암시하는 독자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이 글을 쓴 작가와는 다른 시대, 동시에 살았던 우리 자신과는 다른 누군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의미가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대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독서의 본질에 속합니다. 그것은 텍스트에 대한 경험적 경험에서 비롯되는 일종의 경험적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면 성경의 역사적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 언급되는 일을 경험할 때, 어떤 수준에서는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단순한 골동품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사람들을 언급한 본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읽은 내용에는 우리에게도 역시 언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일종의 지속적인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령 마태복음의 원래 청중이나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낸 위대한 서신을 받은 로마 교회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와 의미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새로운 세대의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의미와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에 대한 우리의 경험 중 일부는 그것이 과거의 역사적 의미뿐 아니라 현재의 역사적 의미, 즉 우리 자신을 위한 의미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단 우리가 텍스트에 의미의 이러한 측면이 모두 있다는 데 동의하면 방법론적으로 반성하려면 과거의 역사적 의미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현재 역사적 중요성.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거의 역사적 의미를 도출하거나 포용하고 만나는 작업이 현재의 역사적 의미를 결정하는 작업보다 우선하며, 현재의 역사적 의미는

다음과 연속되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다음에서 파생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과거의 역사적 중요성. 그렇지 않으면 텍스트 자체의 의미 내에서 분기점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통일이 아닙니다.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는 서로 모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가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영감받은 작가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과 원래의 청중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신 것이 연속성을 갖고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덧붙여서, 실제적인 수준에서만 현재의 역사적 의미, 즉 본문의 적용 의미에 대해 일종의 확신을 가질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 과거의 의미입니다. 특정 적용이 파생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저자가 분명히 원래 청중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에서 명백하고 명확하게 파생될 수 있으며,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가 성경에서 파생하는 적용의 견고한 기초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이제 여기까지 한 시간 정도 갔으니 이야기할 게 세 개밖에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 한숨 쉬고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돌아오면 특히 귀납적 접근 방식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특정 프로세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의 조건.

귀납적 성경공부를 가르치는 David Bauer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 서론, 귀납적 대 연역적입니다.